

단기선교 팀장보고서

미얀마선교7팀 팀장 김원기 안집

❖ 사역의 방법과 현지의 영적 상황 및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현지선교사인 조종덕 목사님과 강영미 전도사의 시무교회인 흘랑따야7동교회의 어린이 175명의 집회와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교회인 로델교회에서 주일날 미얀마 양곤지역의 대학생 70명과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조종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본인이 기도를 드렸고 우리 미얀마 선교7팀이 합으로 미얀마 찬양 2곡을 율동과 함께 불러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마쳤다. 또한 이번 선교에서는 양곤지역에서 일반열차를 타고 하는 선교, 양곤대학에서 대학생을 상대한 선교, 양곤 인야호 수 주변의 1:1 전도, 흘랑따야7동교회주변 지역의 축호전도 등 다양한 선교방법으로 선교를 시도해 보았는데 선교팀원들 모두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선교활동이 잘 이루어 졌다.

❖ 사역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선교 5일째인 토요일 축호전도를 하면서 폭우가 내려 흘랑따야 지역에 무릎까지 비가 내려 축호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열대지방을 우기에 선교할 때에는 크록스 신발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팀장 및 팀원 모두가 사역 기간 중에 선교방침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사역에 동참하였는가?

선교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역이었다.

❖ 팀 훈련 및 준비과정에서 느낀 점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모든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한 관계로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전에 많은 학용품과 의복을 기증받아 현지 어린이 사역 시에 풍성한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여 은혜가 풍성한 어린이 사역활동을 하게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비행기에 싣고 갈 짐이 너무 많아 출발 전에 교회에 모여 모든 짐을 분산하여 일인당 20킬로그램 이하로 화물짐을 구성하였고 개인적인 옷가지 등은 기내에 핸드캐리어로 이동하여 화물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짐이 많을 경우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단기선교 사역보고서

사역기간	2019년.7월.30일. ~ 2019년.8월.5일.			6박 7일		
국가별팀명	미얀마 7팀			사역지	미얀마 양곤	
팀장/서기	팀장	김원기	서명	서기	유미향	서명
보고일자						

상세사역보고

사역형태	노방전도 v /축호전도 v /어린이사역 v /총동원전도/ 의료사육/이미용사역/학교사육/시설보수			
7월 30일(화요일)	오전	교회에서 7시 출발	오후	
	사역내용		사역내용	
7월 31일(수요일)	오전	예배, 어린이 사역	오후	성경학교
	사역내용	-천지창조 말씀전파 -천지 창조의 색종이 접기	사역내용	-주기도문 책자 색칠하기 -레크레이션(풍선불기, 손놀이 게임, 반대로 게임) -복음 부채 만들기
8월 1일(목요일)	오전	인센부다용 기차역	오후	양곤대 캠퍼스, 저드슨선교사기념교회 방문
	사역내용	역내와 기차 탑승하여 복음 제시	사역내용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제시
8월 2일(금요일)	오전	인나 호수	오후	선교사님 댁
	사역내용	호수 방문객들에게 그룹을 나눠 복음제시	사역내용	내일 어린이사역과 달란트 시상 물품정리
8월 3일(토요일)	오전	교회 주변 축호 전도	오후	어린이 사역
	사역내용	가가호호 방문 복음제시	사역내용	복음팔찌, 거지와 부자 연극, 닭죽 대접, 달란트 잔치
8월 4일(일요일)	오전	로템교회 주일예배	오후	로템교회
	사역내용	기도, 특순(찬양)	사역내용	청년 달란트 잔치
월일(요일)	오전		오후	
	사역내용		사역내용	

7월31일(수요일)	총동원전도(어린이 성경학교)			
	사역내용	초청잔치	참가인원	175 명
사역총평 및 개선사항	총평	예상 인원의 3배의 아이들이 회교를 찾았다. 그만큼 선교팀에게 기대하는 아이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연령대가 다양한만큼 소란스러웠으나 선교팀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소통이 잘 안되어서 다소 길게 진행됐었다. 연이은 색종이로 창조물 접기는 아이들이 많은만큼 앞에서 진행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팀원들이 아이들 중간중간에서 도와줬으나 확실하게 배우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레크레이션은 다양한 손놀이와 게임으로 진행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다음 부채 만드는 시간에서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혀지질 않아 진정시키기가 다소 어려워서 부채만들기와 레크레이션의 순서를 바꿨어야함을 이야기 했다.
	개선사항	- 색종이 접기의 경우 전 팀원이 정확하게 숙지할 연습이 필요했었다. - 60 여명이 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75 명의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넉넉히 준비해 갔는데도 준비해간 물품이 부족했었다. 다행히 연령대를 나누어 비슷한 다른프로그램으로 매끄럽게 진행 할 수 있어서 좋았다.